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23-4

(공개)

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

2023. 10. 16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추진방안	2
1. 보험인프라 구축	2
2. 소비자 편의성 증대	3
3.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	4
4.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	5
III. 향후 계획	5

I. 추진배경

□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,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*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*

* 반려동물(개, 고양이) : '18년 635만 마리 → '22년 799만 마리 (추산)
(농림축산식품부, "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" 中)

※ 반려가구 중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비중('21년 15.5% → '23년 19.9%)이 크게 증가(KB경영연구소, 2023 반려동물보고서 中)

○ 이에 따라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, 양육·치료비 부담 등이 높음

* 1)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%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('21.11월, 소비자연맹 조사)
2)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(15만원) 중 병원비가 40%(6만원) ('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)
↳ 반려견 치료는 모두 비급여로서 고가(예 : 감기치료 8만원) + 병원마다 7~8배 편차

□ 반려동물 양육·진료비 등 경감을 위한 반려동물보험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, 가입률이 아직 높지는 않은 수준 ('22년 0.9%)

○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인프라가 부족*하고, 동물의료·보험 간 제휴·연계도 미미**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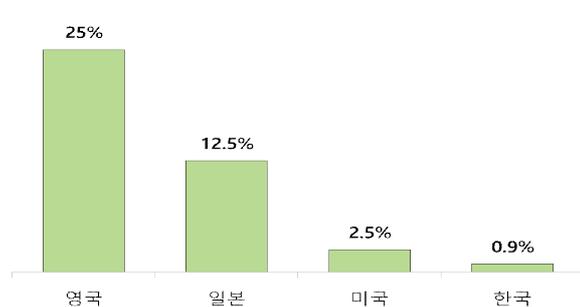
* ①진료관리 체계 개선, ②반려동물 등록을 제고, ③반려동물 건강통계 확보 등 필요

** 현재 동물병원-EMR 업체-보험사 간 구축된 제휴관계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

< 국내 반려동물보험 통계(마리, %) >



< 국내·외 반려동물보험 가입률(%) >



⇒ 관련 인프라 구축, 동물병원-보험사 간 제휴·연계 등을 통한 보다 편리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이용가능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

II. 추진 방안

1 보험인프라 구축

- ◆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

< 현행 >

- (개체식별)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'반려견' 으로 제한적(고양이 등은 자율)이고,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
- (진료기록) 동물병원의 진료서류 관련 발급 등 의무가 없으며, 질병, 진료행위 명칭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계관리 등이 어려움
- (협력체계) 의료·보험 보장 등과 관련된 보험·동물병원 간 연계체계 부재

< 개선 >

- (개체식별 강화) 생체인식정보(예: 비문·홍채 등)로 반려동물 등록¹⁾ 허용,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²⁾ 등 검토·추진 (☞ 농식품부)

- ☞ 1) 농식품부 ICT규제샌드박스 등 先운영(~24) →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 등 검토(25~)
- 2) 반려묘 등록 지원 활성화(23~) →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개정 등 검토(24~)

- (진료기록 증빙)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, 진료내역·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검토·추진* (☞ 농식품부)

- ☞ 「수의사법」 개정 필요사항 (국회 농해수위, 관련법안 5건 계류중)

- (진료항목 표준화) 병원의 실효성 있는 다빈도 중요 진료비* 게시(23.1월~) 및 진료항목 표준화(100개 항목 우선) 추진(24.1월, 「수의사법」 시행예정)

- * ①진찰, ②입원, ③X-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, ④개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
→ 진료항목 표준화를 반영하여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 확대 검토

- (협력체계 구축) 진료·지급기준 협의, 통계 공유, 청구간소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험·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운영

- 보험·동물병원 간 반려동물보험 보장 진료행위, 보장한도 등 협력·연계 허용

2 소비자 편의성 증대 : One-stop 서비스

- ◆ 동물병원, 펫샵 등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가입, 간편청구,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

< 현행 >

- **(가입)**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·펫샵* 등에서 간편하게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
 - *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반려동물보험 판매가능하나, 판매상품이 단기(1년이하)로 제한
- **(청구)** 보험금 청구시 동물병원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 하는 등 불편 지속
- **(건강관리)** 병원과 연계한 다양한 반려동물 서비스 제공에 제한적
- **(등록)** 동물병원 등의 반려동물 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

< 개선 >

- **(병원 보험가입 확대)** 동물병원, 펫샵 등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확대(23.下~)
 - 1)동물병원, 펫샵 등에서 판매가능한 상품을 확대(단기 1년 이하 → 장기 3~5년)하고, 2)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허용

☞ 1) 「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」 별표 29 등 개정, 2) 보험사 자율 시행(필요시 유권해석)

- **(청구시스템 개선)**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·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* 구축 (24.上~ , 수의업계 협업)
 - 보험사 협약 체결 및 진료내역 발급 동물병원 대상 우선 도입
 -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시 대상기관 확대 검토 및 보험개발원 시스템 정비
- **(서비스 다양화)**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, 펫샵 등과 연계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다양한 서비스*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(23.下~)
 - * ① 보험사가 반려동물 등록 지원, 반려동물 건강증진·돌봄 사업 등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
②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리워드 제공한도 등 확대 (3만원 → 20만원)
- **(등록업무 지원)**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 대상 新기술 등록시스템 구축, 소비자 등록비용 지원 등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지원 활성화

3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

◆ 반려인의 수요,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구조 개선 및 신규상품 개발 추진

< 현행 >

- 다수 손보사(11개사)가 보험 판매중이나, 반려동물 특성 고려 없이 보장한도·보험료만 일부 다르게 운영하는 수준

< 참고 : 주요 반려동물보험 상품 비교 >

	A사	B사	C사
견종 특성 반영	특성 반영 없음(일반·할증그룹으로만 구분)		
보장한도	수술 건당 100~150만원	수술 건당 200~250만원	수술 건당 150만원
보장비율	50~70%	50~80%	70%
보험료(年)	평균 약 38만원	평균 약 45만원	평균 약 44만원

< 개선 >

- (1단계: 상품개선) 반려동물(연령·종) 및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하여 現 상품의 보장범위·보험료 등을 다양화(24.1분기~)
 -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·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 조정*
 -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

【※ 참고: 상품구조 조정 예시】

- ① 반려동물 그룹을 세분화하고 질병담보별 위험률을 고려한 합리적 보험요율 산출
- ② 보상비율 다양화(현행 50~70% → 개선 40~90%)로 선택권 증진 및 보험료 부담 합리화
- ③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수술 등 보장조건을 간소화하여 보험료 경감시킨 상품

-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, 적정 의료·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한 할인혜택*도 증대

*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, 백신접종·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, 무사고(보험금 未청구)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

- (2단계: 신규상품 개발)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검토

- 등록된 반려동물 대상으로 보험사 협력(예: 통계분석·연구, 청구 전산화 등)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혜택이 높은 상품 개발

4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

< 현행 >

- 다수 손보사(11개사)가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나, 이러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는 부재한 상황

*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보험 전문회사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·서비스 제공 중

< 개선 >

-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“반려동물 전문 보험사” 진입 허용('23.下~)
 - 재무건전성, 소비자보호 조치, 사업계획의 건전·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

【※ 참고: 신규 진입 예정인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예시】

- ☞ (A사) 1)종합 보험상품에서는 진료+수술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검사·예방비 등도 보장
2)고객의 수요에 맞춰 '수술비' 만 보장하는 보다 저렴한 상품도 출시
 - ☞ (B사) 1)건강검진·예방관리를 충분히 받은 경우 고령견도 가입 가능한 상품 운영
2)견종별 유전적인 건강특성*을 고려한 보험상품 운영
- * 예) 특정 품종의 경우에는 호흡기, 척추질환 등에 취약 → 해당 질병을 집중 보장

Ⅲ. 향후 계획

- 관계부처(농식품부), 동물병원, 보험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

<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추진과제 >

	'23년(~12월)	'24.1~6월	'24.7~12월	'25년~
진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('23년중~) · 진료비용 공시('23.1월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료항목 표준 분류체계 고시 ('24.1월~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료항목 표준화 지속 보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료내역·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검토 («수의사법」 등 개정 추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료내역·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추진 및 시행 (※ «수의사법」 개정 전제 時) 		
상품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강관리 리워드 확대 · 보험상품 개선방안 검토·준비 · 반려동물 특화보험사 허용('23.下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맞춤형 보험상품 (1단계) 판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맞춤형 보험상품(1단계) 보완 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맞춤형 보험상품(2단계) 개발 검토 (인프라 구축 상황 등과 연계하여 출시 검토) 		
기타 인프라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험·수의업계 협약 체결, 제휴관계 구축 등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료행위·통계·청구절차 등 제휴관계 지속 추진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려동물보험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세부 방안 검토 및 준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구간소화 서비스 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구간소화 참여 확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려동물 등록제 ICT Sandbox 운영(~'24년) 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등록제 법제화 검토

참고1

반려동물보험 맞춤형 상품개발 세부내용

- (1단계: 상품개선) 반려동물 연령·종의 특성, 질병특성 등을 고려하여 現 상품의 보장범위·보험료 등을 다양화
 - ¹⁾반려동물 그룹을 세분화하고 질병담보별 위험률을 고려한 합리적 보험요율(참조순보험요율) 산출, ²⁾보상비율 다양화(현행 50~70% → 개선 40~90%)
 - * 예) 1)중증질환을 보장받지 않고 보상비율을 낮게 선택할 시 현행보다 보험료 경감
2)중증질환을 두텁게 보장받으려는 경우 보장가능 질병, 보상한도 증가(70 → 90%)
 -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
 -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, 적정 의료·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한 할인혜택도 증대
 - * 예) 1)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2)백신접종·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
3)무사고(보험금 未청구)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

< 참고 : 현행 보험상품 개선 방안 >

		현행	개선 (예시)	
보장범위	일률적 상품으로 다양성 부족	소비자 수요에 맞춰 보장 다양화	예) 연령 등에 따라 보상비율·회수·한도 및 자기부담금 수준 다양화	예) 건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중증질환 보장 범위 등 다양화
		반려동물 건강관리 유인 강화	예) 백신접종 및 건강검진 이력을 감안하여 건강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 신설	예) 등록 반려동물 및 무사고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 신설·강화
보험료	산정 방식	의료이용 비례 미흡	의료이용 비례 구조 강화	예) 매년 의료이용량에 비례하여 보험요율 할인·할증 + 未청구자 할인혜택 증대 ※ 상품 특성에 따라 의료이용 비례 다양화 등도 검토
반려인-반려견 연동	거의 없음	반려인·반려견 가입·보장 연동	예) 반려인은 상해·질병 등을 보장받고, 반려동물은 돌봄비·암진단비·입원치료비 보장	

- (2단계: 신규상품 개발)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검토
 - ⇒ ^①등록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^②보험사 협력(예 : 통계분석·연구, 청구전산화 등)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혜택이 높은 상품 개발
 - 기존 상품의 치료비 보장 혜택에 더하여 반려동물 등록비용, 예방·검진비용 등도 지원하고, 돌봄·건강관리서비스 등도 제공
 - 수의업계와 함께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보장범위·보장금액 등을 확대*하는 등, 소비자 의료비 부담 경감
 - * 예) 치료효과가 검증되고, 과잉진료·보험사기 유인이 낮은 진료행위로 판단시,
1)既 보장대상 : 기본 공제금액을 낮추고 보장비율을 확대
2)未 보장대상 : 반려인·반려동물 수요를 고려하여 보장범위에 적극 편입

□ (해외사례) 반려동물보험 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·서비스를 제공 중

- [1] (美) **Trupanion** : 출생 직후부터 고령견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부담액·보장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,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
- [2] (英) **BOUGHTBYMANY** : 사고, 질병 등 뿐만 아니라 웰니스(wellness, 건강관리) 등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추가된 보험상품 제공
- [3] (日) ①**Anicom** : 동물병원에 전자차트(EMR) 시스템 지원 등 제휴관계를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려동물보험 특화 손해보험사로서 성장
 ②**츄리히소액단기보험** :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암이나 양성 종양, 골절 등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“개 암보험”을 출시

□ (국내예시)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“반려동물 전문보험사” 진입 허용

[1] (신규 보험사) 재무건전성, 소비자 보호 조치, 사업계획의 건전·타당성* 등 충실히 심사

* 예)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상품출시+시스템 운영 계획 등

[2] (기존 보험사) 기존 보험사가 기존 판매중이던 반려동물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한 경우에 한해 **주회사 방식의 반려동물보험 전문회사** 진입 허용

【세부사업 예시】

- ☞ (A사) 1)종합 보험상품에서는 진료+수술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검사·예방비 등도 보장
 2)고객의 수요에 맞춰 ‘수술비’ 만 보장하는 보다 저렴한 상품도 출시
- ☞ (B사) 1)건강검진·예방관리를 충분히 받은 경우 고령견도 가입 가능한 상품 운영
 2)견종별 유전적인 건강특성*을 고려한 보험상품 운영

* 예) 특정 품종의 경우에는 호흡기, 척추질환 등에 취약 → 해당 질병을 집중 보장